

지역사회 독서문화 이끄는 든든한 일꾼

경상북도 경산의 '책나라 서점'

책나라서점은 대표 이진구씨를 비롯해서 유재곤(매장담당), 김우영(김우영치과 원장), 김기호(경산중 교사), 이상한(한겨레신문 지국장)씨 등이 공동출자한 서점이다. 경북 경산시 중방동 607-7에 있는 50평 규모의 이 서점은 서점이라는 표면적 모습 이외에 경산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경산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주력”

책나라서점이 문을 연 것은 지난 4월 11일. 채 두 달이 다 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이 서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방서점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 이진구씨는 “경산지역에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좋은 책 보급과 건전한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책방을 열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점측의 노력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서점에서는 「책나라 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매달 발행, 서점의 소식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신간도서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독자들의 호응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간된 「책나라 소식」창간호를 보면 이 서점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이 달의 책나라 권장도서’ ‘책정보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책을 읽을 때’ 등의 안내기사로 채워져 있는데, ‘이 달의 책나라 권장도서’는 김기호씨의 주도하에 출자자들이 모두 모여 “팔리지 않는 책이라도 독자들에게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는 책”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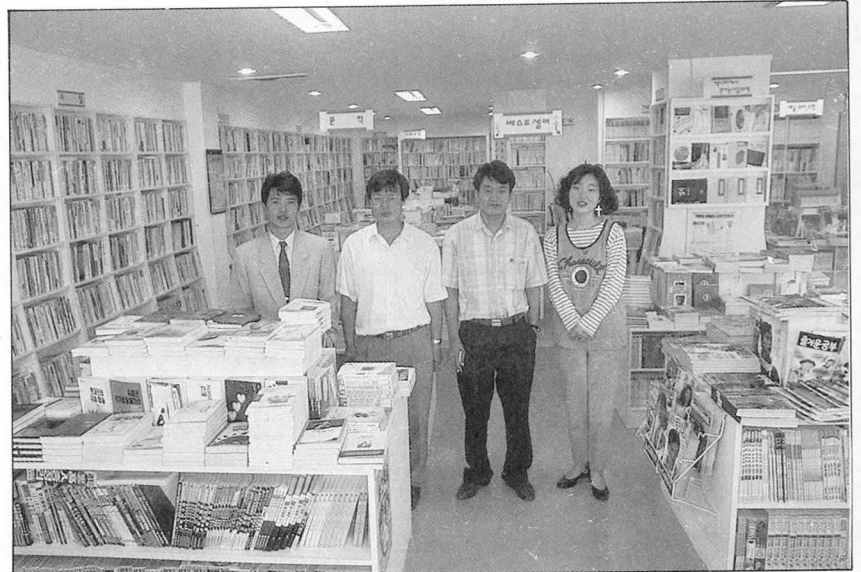
정하여 그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여기 선정된 책들의 경우 다른 서점보다 책나라서점에서의 판매량이 월등히 높다는 것.

‘책정보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는 각종 도서정보지의 성격을 비롯해서 특장점, 연락처, 구독신청안내까지 비교적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책나라 소식」 2호에는 전자매체를 통한 도서정보에 대한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책을 읽을 때’라는 난은 보다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서점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한 호 발행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소식지 발간 1년 예산이 7~8백만원이나 된다는 것. 그럼에도 이들이 소식지 발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독자가 구하는 모든 책을 보급한다”는 자체 의무규정과 양서보급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결의 때문. 부차적으로 서점홍보도 소식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성실한 도서정보 안내에 시민들 호응 좋아

책나라서점 매장의 특징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별점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여느 서점과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책에 비해 매장이 좁다는 것은 이곳만의 고충은 아닐 것이지 만 비좁음속에서도 ‘책 보시는 곳-도서상담 환영’이라는 풋말이 붙은 탁자를 마련, 작은 컴퓨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책이 없다면, 그 책에 대한 정보만이라도 독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이진구씨의 말은 그 탁자에서도 그 진위가 확인된다. 독서상담을 위해 이곳에서는



책나라서점 매장. 왼쪽부터 이진구씨, 김기호씨, 유재곤씨, 성미정씨(직원).

또한 각종 신문을 정리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진구씨가 말하는 책나라서점의 독서상담사례 한가지.

“며칠전 어느 독자가 TV에서 봤다며 「크리스탈과 이즐데」라는 책을 찾아서 백방으로 그 책의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런 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건 책이 아니라 바그너의 작품집이더군요.”

개인자격의 독자 이외에도 각급 학교의 학급문고와 대구보호관찰소가 의뢰한 도서목록도 선정해 주는 등 책 판매보다 더 바쁜 시간을 도서정보안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서울에서 집계한 베스트셀러 위주 판매를 지양하는 도서진열과, 참고서 진열대가 작다는 것은 나름대로 책나라서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진구씨는 “양서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권장도서 위주의 진열을 하고

있고 우리 서점이 20~30대의 시민과 주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참고서 진열대를 없애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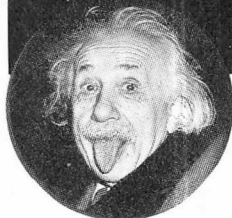
부대사업으로 책나라서점에서는 2개월에 1회씩 저자와의 만남을 기획, 6월 20일에는 박일문씨를 초청하기로 했으며 최근 5년간의 베스트셀러를 모아 도서전도 열어 베스트셀러수용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도 풀어줄 예정이다.

“규모가 작아도 양서보급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는 이진구씨의 말은 서점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중소서점인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인 듯하다.

—이성수 기자

아인슈타인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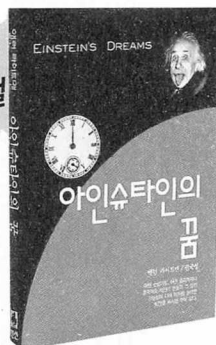
EINSTEIN'S DREAMS



“아인슈타인과 함께 떠나는 환상 시간 여행”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

신간 소설



.....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시간에 대해 많은 꿈을 꾸었다. 꿈은 그의 연구를 사로 잡아 버렸다. 그러나 꿈은 이제 끝났다. 그럴듯한 시간의 성격은 시간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한 가지씩 새로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유달리 마음을 끄는 것이다. 그는 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한다.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원처럼 흐를 수도 있고, 거꾸로 흐를 수도 있으며 또는 피꼬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마침내 드러나는 삶과 우주의 참 모습...

• 앨런 라이트먼/권국성 옮김/값 4,8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